

남원시 “미꾸리 양식장 빌려 쓰세요”

미꾸리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다음달 6일까지 입주자 모집
3~4월 사전교육…5월 순차 가동

남원시가 미꾸리 대량 생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의 입주자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축적한 실내 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2017년 해양수산부 내수면양식단지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뒤 주생면 중동리 일원에 4㏊ 규모의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 2024년 조성을 완료했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원을 추가 확보해 해당 부지에 20동 규모의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을 조성 중이다. 준공은 오는 4월로 예정됐다.

시는 이에 맞춰 2월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뒤 3~4월 사전교육, 4월 입대자 계약, 5월 순차 가동까지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민간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입주자의 초기 시설투자비와 경영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해 준다.



남원시 주생면 일원의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감도.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의 취지에 맞춰 전체 18동 중 50%를 관내 입주자에게 배정하는 등 남원으로 전입해 미꾸리 양식 창업을 희망하는 입주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또 45세 이하 청년 신청자 가점 부여를 비롯해

양식경력, 관련 교육수료 실적, 가족 동반전입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가동을 계기로 남원 주어산업을 전국 어디에도 없는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남원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낭만’ 고창에서 1박 2일 여행하고 경비도 받고

문화관광재단, 체류형 관광 유도…다음 달부터 텁당 최대 10만원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재단은 외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한 밤’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창한 밤’은 고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객의 지역 내 숙박과 소비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사업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된다. 선정된

팀은 참가비 1만원을 납부한 뒤 여행을 즐기면 된다. 이후 정산을 신청하면 1박 2일 이상 여행한 팀에 한해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가 지원된다. 참가비는 여행 완료 시 전액 환급되며, 지원금은 고창사랑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고창 관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신청인을 포함한 동행 인원 모두 법적 성인어야 한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 모집 신청 기간은 2월 25일까지며, 총 4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해 참여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고창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택시 서비스 질 높인다

6억여 원 투입…기사 처우 개선·고정비 부담 완화 등 지원

남원시가 택시 업계 경영 안정 도모와 시민 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5억 6200만원(도비 6300만원, 시비 4억 9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관내 택시 321대(개인 242대, 법인(6개) 79대)가 대상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콜관제료 ▲카드수수료 ▲카드통신료 등 택시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다. 업계 고정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초

점을 맞췄다.

카드수수료는 전액, 콜관제료는 월 4만 원 한도, 카드통신료는 월 5500원을 정액 지원해 실질적 경영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또 월 6만 원 수준의 시정 흥보비를 지원해 택시를 ‘움직이는 흥보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정 흥보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택시 업계의 수익 기반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택시 기사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추진, 근속기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15대)과 병방등 설치 지원을 병행한다.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시민 안전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병방등 설치 지원은 1분기 내 완료하고 콜관제료·카드수수료·통신료 등 각종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별도로 시는 택시 지도·감독 업무를 연증 추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택시 기사 근무 여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 안전 확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택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군, 청년세대 공공임대 보증금 지원

최대 5000만원…자녀수 따라 최장 10년간 무이자

고창군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18세~39세 미혼 청년이며 최대 5000만원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신혼부부와 청년은 2회, 1

자녀 가구 3회,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에 방문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공공일자리로 어르신 사회 참여 확대

내장산국립공원과 협약…20여명 다음 달부터 현장 배치



지난 27일 내장산공원사무소 한경동(오른쪽) 소장과 정읍시니어클럽 박환수(왼쪽) 관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시 제공〉

공원 현장에 배치돼 공원 이용안내,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공원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원사무소 김공주 자원보전과장은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함께 도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읍시니어클럽은 20명의 참여자를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2월 1일부터 내장산국립

공원에 배치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현역 전원 ‘군 복무 상해보험’ 가입

정읍시가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지역 청년들이 사고나 질병 걱정 없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방 의무를 수행 중인 모든 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및 상근 예비역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직업군인인 부사관과 장교, 보충역·대체역인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전액 부담한다.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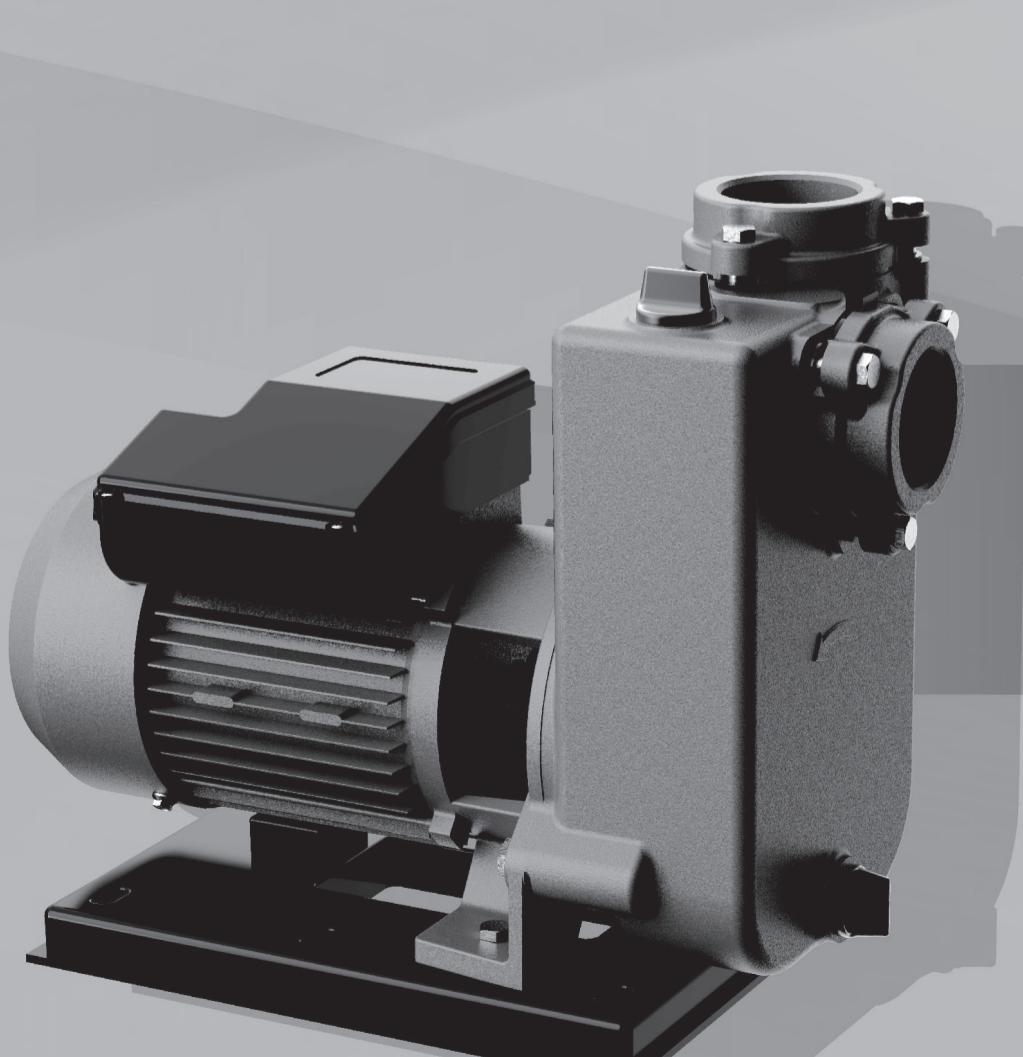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상해 및 질병 입원 ▲뇌출증 진단비 ▲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수술 위로금 ▲골절 발생 위로금

▲화상 발생 위로금 등 총 13개다. 보험금 신청은 군 복무 중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질병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